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 LED 조명등 설치한다는데...

‘빛 공해’에 명품길 훼손 우려

담양군이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야간에도 둘러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키로 해 ‘빛 공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대나무박람회 앞둔 야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담양군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생태계 변화 등 나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민·환경단체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2.1km 구간) 중 500m(매점~영성태마파크)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공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예산 형편을 감안한 조치로 군은 최근 해당 구간 내 LED 조명기구 62개 등을 설치하기 위한 4억2300만원 규모의 입찰 공고를 내고 낙찰업체를 선정할 바 있다.

야간 조명이 설치되는 해당 숲길 내 40~50년 수령의 메타세쿼이아 나무 125그루가 식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72년부터 조성된 메타세쿼이아 숲길은 지름 0.6~1.5m, 높이 24~35m의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모양새가 이국적 풍취를 자아내면서 한 해에 만 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품숲길로 알려져 있다.

내달 대나무박람회 앞두고 야간 관광객 유치 위해 추진

고령 수목들 낮밤 구분못해 스트레스·생육부진 악영향

산림청과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 등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거리숲’ 대상으로 차지하는 가 하면,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담양군의 야간 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빛 공해’로 수목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나 생육부진 등에 대한 고민없이 야간 개방에 따른 관광객 유치 여부만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간 시각, 인공적인 불빛이 내리쬐릴 경우 나무를 비롯한 식물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담양군이 수령 50~300년 된 메타세쿼이아 숲길 뿐 아니라 관방제림, 죽녹원 등 대표적 관광명소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 개선 사업이 환경 전문가 참여 없이 추진돼 아쉬운 행정에 대한 지적도 적

지 않다. 담양군은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된 관방제림과 16만㎡의 울창한 대숲으로 이뤄진 죽녹원 일원에도 이달 말까지 조명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호남대 조경학과 오구균 교수는 “이벤트성으로 1~2주가량 조명을 비추는 게 아니라 야간 시간대 연중 조명이 켜질 경우 온도, 열, 조도 등을 고려한 수목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이나 관방제림, 죽녹원 등은 수목을 핵심으로 한 명소라는 점에서 야간에 나무들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야간 경관 개선 사업 과정에서 환경 전문가가 참여가 이뤄진 않았지만 조명이 나무 잎사귀 방향으로 비추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고려할 계획”이라며 “야간 조명 설치에 따른 야간 개방 여부 등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메타세쿼이아길(오전 9시~오후 7시)에 대한 입장료로 ▲2012년 3억600만원(방문객 42만명) ▲2013년 3억5000만원(“ 47만 4000명) ▲2014년 4억6100만원(“ 63만 8000명) 등을 거둬들였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시내버스 엔진룸 문제’ 현대차에 잇따라 제기

운송업체, 답변 요구·불매 표명 천정배 의원도 자료 요구 분석

광주지역 시내버스 가운데 특정 차종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광주시의 분석 결과가 광주일보 보도(12일자 1면)로 알려진 이후,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제작사인 현대자동차 측에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의원도 시내버스 엔진룸의 구조적 문제로 시민 안전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10년 치 버스화재(시내버스·관광버스 등) 자료와 리콜 조치 내역 등을 요구하는 등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시내버스 운송 업체인 대진운수는 지난 13일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 ‘뉴슈퍼 에어로시티(유로 5)’ 차종 엔진룸의 구조적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 결함 인정 여부와 개선책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다.

대진운수 측은 현대차 측이 책임 있는 답변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매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대진운수는 또 현대차 측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19일 발생한 ‘유로 5’ 시내버스 화재의 원인과 현대차의 입장 ▲당사(대진운수) 차량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계획(‘유로 5’, 32대) ▲광주시내버스 중 ‘유로 5’ 차종(700여대)에 대한 엔진룸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에 대한 현대차 측의 입장과 방침을 문서로 밝혀달

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동화운수도 ‘유로 5’ 차종 엔진룸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규명해달라고 광주시를 찾아 직접 요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9일 승객 30명을 태운 버스가 운전 중 엔진룸에서 화재가 나면서 차량 뒷부분이 불에 타고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위험한 순간을 맞았었다.

이후 조사에 나선 광주시는 현대차 ‘유로 5’ 차종의 경우 엔진룸 터보장치와 인접한 흡입벨브가 가연성 물질인 고무·플라스틱 소재로 된 탓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현대차 측에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인양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 소속 1만1706t 크레인 작업선 다리(大力)호와 450t 예인선 화희(華和)호가 지난 15일 진도 현장에 도착해 현장 조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록회관 왕벚나무 군락지 제대로 보존될까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상록회관 일대 도심 녹지 공간이 온전히 남겨질 수 있을까.

상록회관 부지를 매입한 서울지역 부동산개발업체가 왕벚나무 군락지 전체를 ‘보존(保存)’하는 데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광주시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상록회관 부지 소유업체인 부동산개발업체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상록회관 부지 내 왕벚나무 군락지 일부와 인근 상록공원으로 연결되는 통로부지 등 4421㎡(1337평)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가 최근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한 차례 보완 요청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반론 결정을 내렸다.

개발업체 미온적 입장에 광주시, 신청서 또 반려

상록회관 부지 내 녹지공간만 놓고 보면 기부채납 규모의 경우 DS네트웍스가 지난 6월 제출했던 면적(3375㎡)보다 30.9%(1046㎡) 늘어난 면적이지만 왕벚나무 군락지(6000여㎡) 일부만 기부채납 부지에 포함한다. 상록공원 인근 부지도 일부에 머물러 ‘보완’ 결정을 내렸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해당 개발업체는 또 15~27층 규모의 아파트 12개 동(1082세대·16만9721㎡)을 짓겠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상록회관 부지에 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1만4300㎡)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층수 제한 규정도 1종 주거지

역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나무, 벚나무 숲 등 녹지 공간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존 요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 광주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녹지공간을 포함한 전체 기부채납 규모 1차 신청서에 비해 도로 기부채납 면적(3227㎡ → 2776㎡)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한편, DS네트웍스는 지난해 10월 1일 상록회관 부지 4만8952㎡(준주거지역 3만6730㎡·1종 일반주거지역 1만2222㎡)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구입한 바 있다. 상록회관 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 지역민들은 도심 녹지 공간인 상록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세월호 인양할 크레인 작업선 진도 도착

내년 7월까지 마무리 계획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크레인 작업선이 진도 해역에 도착하고 인양 업체가 주민과 관계기관에 세월호 인양 작업 계획을 밝히는 등 침몰한 세월호 인양 작업이 본격화했다.

16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인양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 소속 1만1706t 크레인 작업선 다리(大力)호와 450t 예인선 화희(華和)가 전날 진도 해역에 도착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 측은 전남도, 진도군, 목포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해군 3함대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

는 실종자 유실 방지와 잔존유 회수, 선체 원형을 유지한 인양을 작업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내년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크레인 작업선이 세월호 침몰 해역에 도착한 만큼 인양업체 측은 오는 10월 말까지 현장 조사, 잔존유 제거 및 처리,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한 안전 그물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한다. 인양업체 측은 우선 잠수사와 원격조정 무인잠수정을 투입시켜 세월호 현재 상태를 1주일에 걸쳐 조사한 뒤 인양을 위한 설계 작업에 반영키로 했다.

겨울철이 지난 내년 3월부터는 선체 인양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된다. 수심 40여m 아래에 침몰한 세월호는 선체 구조 및 강도 분석 작업과 인양 하중을 계산한 뒤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플로팅 도크로 끌어올려진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100여명 치마 속 몰카 20대 탈미

○~100여명에 달하는 젊은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찍어 동영상으로 보관하는 등 은밀한 사생활(?)을 즐기던 산업기능요원인 경찰서형.

○~16일 고충경찰에 따르면 전남도(23)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12월까지 2년간 고충군 고충읍 한 대형마트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속옷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100여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

○경찰은 ‘젊은 남성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이던 중, 물건을 고르는 여성의 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던 전씨를 붙잡았는데, 전씨는 경찰에서 “아한 동영상을 보다가 (몰카를) 찍어보고 싶었다. 스티킹에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

/고충=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능)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용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 시설 **완비**
- **에어컨 2대 내부깔끔** (시비약간있음)

보 2천만 월 130만

급매 / 부동산 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점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완동 수완지구 4층중 3층 86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직접 운영시 1800만

매매가 15억 (보 2억, 융 6억) | **건물 올 리모델링 임대 완료 만실!**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인테리어 중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010-7384-7800 / 010-6670-9800